

부산지역 도매시장 채소류 및 과일류 중 유기인계 잔류농약 실태연구(2017~2019)

I |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유기인계 농약은 현재 많이 사용하는 농약 중 하나로,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부적합 농약 중 유기인계 농약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됨
- 유해 유통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산지역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중 채소류와 과일류를 대상으로 유기인계 농약 잔류실태를 파악하여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II |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기간 : 2019. 1. ~ 2019. 12.(1년)
- 연구대상 : 부산지역 도매시장에 반입된 채소류 및 과일류 7,690건
- 연구방법 : 식품공전의 7.1.2.2 다중농약 다성분 분석법에 의한 유기인계 농약 39종 분석

III | 연구결과

-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77개 품목 7,690건(채소류 60개 품목 6,861건, 과일류 17개 품목 829건)을 조사하여 그 중 39건에서 유기인계 농약이 검출되었고, 연도별 검출현황은 2017년 2,491건 중 13건(0.5%), 2018년 2,656건 중 12건(0.5%), 2019년 2,543건 중 14건(0.6%)에서 검출되었다.
- 농산물 소분류별 검출현황은 엽채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, 감귤류 5건, 엽경채류, 박과이외과채류, 인과류, 핵과류 각 1건에서 검출되었다. 품목별 검출빈도는 깻잎이 7건으로 가장 높았고, 감귤 5건, 시금치, 썩갓 각 4건, 참나물 3건, 엇갈이배추, 열무, 취나물, 치커리 각 2건, 감, 고추, 고춧잎, 근대, 머위, 복숭아, 부추, 상추 각 1건으로 나타났다.
- 농약 성분별 검출현황은 8종의 유기인계 농약이 39회 검출되었으며, Chlorpyrifos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Diazinon 9회, Phenthoate 5회, Ethoprophos, Fenitrothion 각 4회, Cadusafos 3회, Prothiofos 2회, Iprobenfos 1회 순으로 검출되었다.
- 유기인계 농약이 검출된 39건 농산물 중 20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,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유기인계 농약의 검출횟수는 Chlorpyrifos와 Diazinon이 각 6회로 가장 많았고 Ethoprophos 3회, Cadusafos, Fenitrothion 각 2회, Prothiofos 1회 순으로 나타났다.

IV | 정책연계방안

- 식품안전관리지침 등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

V | 활용계획

- 부산지역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유기인계 농약 잔류실태 파악 및 자료축적
-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